

토지주택박물관대학
전통문화과정 제23기

지(知)의 혁명

— 한글 창제의 원리와 우수성 —

김 주 원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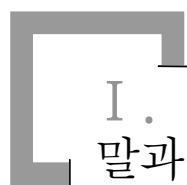




지(知)의 혁명

— 한글 창제의 원리와 우수성 —

김 주 원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



I.

말과 글, 언어와 문자

- (1) 신라시대의 한글이 현대의 한글과 얼마나 다르니까? (모 법대 교수)
- (2) 고 교수, 그렇다면 세종대왕 이전에는 도대체 무슨 말을 썼단 말ियो?
- (3) 이를 위해 세종은 인간의 구강(口腔)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는 언어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전 세계 어느 언어도 갖지 못한 《훈민정음》만의 특출한 장점이다.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정신으로 돌아가면 지구상의 모든 언어를 완벽하게 적을 수 있다. (2010.5.23, 중앙일간지)
- (4-1) 유네스코가 1997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했을 만큼 우수한 한글이다. 우리 스스로 소중하고 아름답게 갖고 다듬어야 해외에도 당당하게 전파할 수 있다. (2009-08-07, 신문 칼럼)
- (4-2) 유네스코는 1997년 한글을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 그런 한글을 우리 스스로는 푸대접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2009-08-07, 신문 칼럼)

II. 훈민정음의 의미

- (1)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 (2) 글자 이름
정음, 언문, 반절, 암글, 한글
- (3) 책 이름
訓民正音(해례본 [국보 70호], 언해본)

III. 훈민정음 창제(1443)의 전후: 세종의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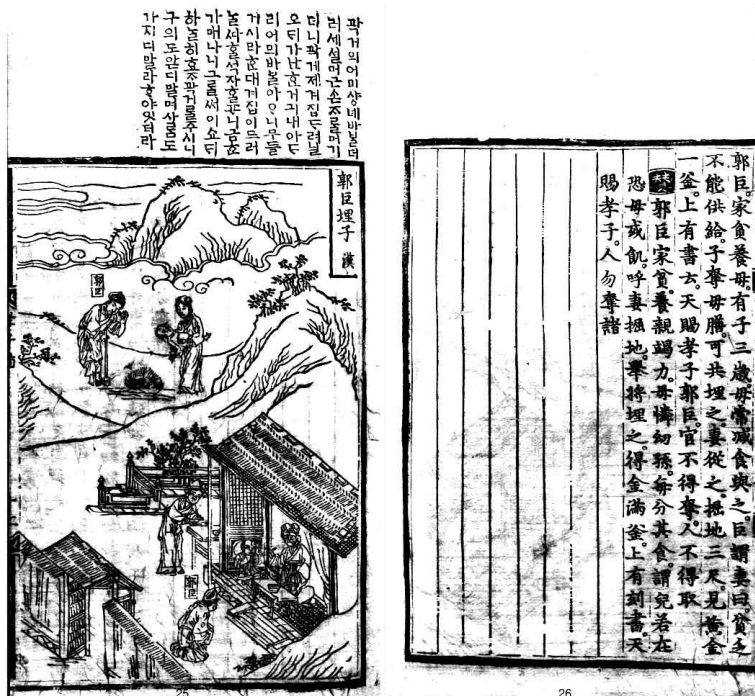
- 孝悌를 돈독히 하고, 風俗을 후하게 하라(1428, 세종10)
- 삼강행실도(1434, 세종16)
- 親制 훈민정음(1443, 세종25)
- 최만리 반대 상소(1444)에 대한 대응
- 훈민정음 頒布(1446년, 세종 28)
- 언해 삼강행실도 발간(1484, 성종15)

임금이 일찍이 진주(晉州) 사람 김화(金禾)가 그 아버지를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라
낮빛을 변화고는 곧 자책(自責)하고

임금이 직제학(直提學) 설순(僣循)에게 이르기를,

“《효행록》을 간행하여 이로써 어리석은 백성들을 깨우쳐 주려고 생각한다. 이것은 비록 폐단을
구제하는 급무가 아니지만, 그러나 실로 교화하는 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니, ... 모두 수집
하여 한 책을 편찬해 이루도록 하되, 집현전(集賢殿)에서 이를 주관하라.”

<세종실록, 1428년 10월>



<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

오히려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직도 쉽게 깨달아 알지 못할까 염려하여, 그림을 붙이고 이름하여 《삼강행실(三綱行實)》이라 하고, 인쇄하여 널리 퍼서 거리에서 노는 아이들과 골목 안 여염집 부녀들까지도 모두 쉽게 알기를 바라노니, ... 다만 백성들이 문자를 알지 못하여 책을 비록 나누어 주었을지라도, 남이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역시 어찌 그 뜻을 알아서 감동하고 착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으리오.

<세종실록 1434년 4월>

(설총이) 이두를 제작한 본뜻이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함이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것이 백성을 편리하게 한 것이라면 이제의 언문도 역시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한 것이다.

<세종실록 1444년 2월>



< 세종실록 1443년 12월 >

IV. 책 훈민정음

1 두 종류

해례본(한문본, 원본)과 언해본(월인석보 권두본)

2 훈민정음 해례본(解例本)

- 5解 : 制字解, 初聲解, 中聲解, 終聲解, 合字解
- 1例 : 用字例
- 1446년 출판(훈민정음 반포)
- 1940년 경북 안동에서 출현, 간송 선생이 구입
- 1962년 국보 70호 지정
- 1997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3 훈민정음 해례본의 구성

- 세종임금 서문과 예의(例義) 1~4
- 집현전 신하의 해례(解例) 5~30
 - 制字解 5~18
 - 初聲解 18~19
 - 中聲解 19~21
 - 終聲解 21~24
 - 合字解 24~28
 - 用字例 28~30
- 정인지 서문 30~33

* 해례본의 필자

정인지(예조판서, 집현전 대제학)와

최항, 박팽년, 신숙주, 성삼문, 강희안, 이개, 이선로

4 책의 특징

우선 이 책을 꼼꼼히 관찰하면 우리의 인쇄 문화가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은 한문본으로서 크게 보아 세종 임금의 글[서문과 예의(例義)] 4장과 집현전 학자들의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 즉 해례(解例) 29장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목판본이다. 임금의 글은 크게 썼고, 신하의 글은 보다 작게 썼는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목판본 반장[반곽(半廓)이라고 한다]에 전자는 7행에 매 행 11자가 들어가 있으며, 후자 즉 신하의 글은 8행에 매 행 13자가 들어가 있다. 책의 판심도 각각 정음(正音)과 정음해례(正音解例)로 되어 있다. 글씨를 쓴 이는 당대의 명필이자 세종 임금의 셋째 아들인 안평 대군 용(瑢)인데 임금의 글은 방정한 해서체(楷書體)로, 신하의 글은 단아한 해행서체(楷行書體)로 썼다. 신하들이란 집현전 학사들을 말하는데 그들의 이름을 들어 보면, 정인지, 최항, 박팽년, 신숙주, 성삼문, 강희안, 이개, 이선로의 8명이다(이 중에서 세 명이 사육신이다). 이들 학자를 대표하여 해례의 서문을 쓴 이가 당시 예조 판서(禮曹判書)이자 집현전 대제학(集賢殿 大提學)이었던 정인지이다. 그의 서문은 일반적인 서문과 달리 책의 끝에 있는데 임금의 글과 같은 책에 들어 있는 신하의 글이므로 뒤로 간 것이다. 한편 신하의 글에서 임금이나 임금에 관련된 것을 지칭할 때에는 자신의 글을 내려쓰거나 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다음 행에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책의 경우에도 매 행을 한 글자씩 내려서 썼으며, 殿下(우리의 전하), 命(임금의 명령), 大智(임금의 큰 지혜)는 쓰던 행을 비워 놓고 다음 행의 첫머리에 씌으로써 군신 간의 예의를 지키고 있다. 또한 世子라는 글자는 같은 행에서 한 글자를 비우고 쓰고 있다[정인지는 세자 우빈객(右賓客)이었다]. 그리고 집현전 학사들의 이름을 열거할 때에도 행의 반만 차지할 정도의 작은 글씨로 적어 놓았다. 정인지 서문 외에 합자해에도 이런 것이 있는데 칠언으로 된 결(訣)에 “하루아침 지으셨으나(一朝 制作), 신의 조화와도 같으셔서”에서 제작(制作)은 임금이 한 일이므로 행을 바꾸어 시작하고 있다.

V. 글 훈민정음 즉 한글

1 훈민정음(한글)의 문자사적 위치

- 백성을 위한 글자
- 세계 최초의 창제된 글자
- 세계 유일의 창제자를 알 수 있는 글자
- 세계 유일의 창제 원리를 알 수 있는 글자

2 훈민정음 창제의 원리

상형(象形)과 가획(加劃, 加畫)

○ 초성의 제자 원리

기본자 : 상형(象形)의 원리(발음기관을 상형)

“초성은 17글자인데,

어금닛소리(글자)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닫는 모양을 본뜨고,
(牙音 ㄱ 象舌根閉喉之形 <制字解>)

혓소리(글자) ㄴ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뜨고,
(齒音 ㄴ 象齒形 <制字解>)

입술소리(글자) ㅁ은 입 모양을 본뜨고,

잇소리(글자) ㄷ은 이의 모양을 본뜨고,

목소리(글자) ㅇ은 목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그 밖의 글자 : 가획(加劃)의 원리

“ㄱ은 ㄱ에 비하여 소리가 조금 세므로 획수를 더 하였다. ㄴ에서 ㄷ, ㄷ에서 ㅌ으로 (생략) 그것이 소리에 따라 획수를 더한 까닭은 모두 한가지이다.” (ㄱ 比 ㄱ 聲出稍厲 故加畫 ㄴ而ㄷ, ㄷ而ㅌ, ㅌ而ㄷ, ㅌ而ㅌ, ㅌ而ㅌ, ㅌ而ㅌ <制字解>)

ㄱ → ㅋ
 ㄴ → ㄷ → ㅌ (ㄷ → ㄷ)
 ㄹ → ㄹ → ㄹ
 ㅅ → ㅆ → ㅆ (ㅅ → ㅅ)
 ㅇ → ㆁ → ㆁ (ㅇ → ㆁ)

예외 : 이체자(異體字) / ㄷ, ㅌ, ㆁ (획을 더하는 뜻은 없다)

초성					중성		
이름	기본자	상형	가획자	이체자	기본형	자형	상형
牙音	ㄱ	象舌根閉喉之形	ㅋ	ㅇ	·	圓	象乎天
舌音	ㄴ	象舌附上齶之形	ㄷ, ㅌ	ㄷ	一	平	象乎地
脣音	ㅁ	象口形	ㅂ, ㅍ				
齒音	ㅅ	象齒形	ㅆ, ㅈ	ㅌ		立	象乎人
喉音	ㅇ	象喉形	ㆁ, ㆁ				

○ 중성의 제자 원리

기본자 : 천 · 지 · 인(天 · 地 · 人)의 삼재(三才)를 추상화하여 상형 (· , 一 , |)

하늘(天) - 땅(地) - 사람(人)
 ● 一 |

기본자	상형	혀뿌리의 모양	소릿값
·	天	舌縮	聲深
一	地	舌小縮	聲不深不淺
	人	舌不縮	聲淺

그 밖 : 기본자를 바탕으로

초출자(初出字) : ㄱ, ㄴ, ㄷ, ㄹ

재출자(再出字) : ㅋ, ㆁ, ㅌ, ㄷ

○ 종성

“종성은 다시 초성을 사용한다.”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

3 훈민정음의 과학성

음절의 삼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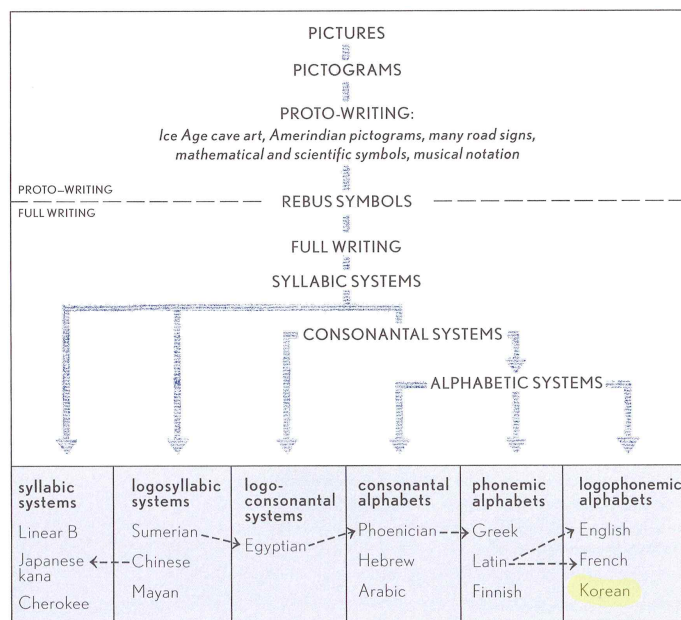
- 성운학 이분법(성모+운모)

반절법 東 德紅切 (동= ㄷ+ ㅛㅇ)

- 훈민정음 삼분법(초성-중성-종성)

초성-중성-종성 (ㄷ+ㅛ+ㅇ)

설축(舌縮) 이론은 500년을 앞선 이론



4 훈민정음의 우수성

당시의 한국어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한국어를 표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를 창안해 내었다. 즉 중국의 성운학을 바탕으로 하되 당시 성운학에 없던 개념을 창안하여 전혀 새로운 문자 체계를 만들었다.

소리글자는 문자 발달의 최고의 단계의 문자(한글은 자질문자)

표의문자(단어글자)	표음문자(소리글자)		
	음절문자	음소문자	
		음소문자	자질문자
ㅁ[kou]	ㅁ[ro]	M(-P)	ㅁ[m]-ㅂ[p]
입모양 상형	ㅁ의 일부	원글자는 상형	상형-가획

“바람 소리, 학의 울음, 닭의 소리, 개 짖는 소리일지라도 모두 적을 수 있다.”
(雖風聲鶴唳, 鷄鳴狗吠, 皆可得而書矣) <훈민정음해례본, 정인지 서문>

발음기관을 상형한 인류보편적인 글자

자음과 모음을 분리해서 만든 글자

모음조화를 이해하고 만든 글자

양성모음 ; | 의 오른쪽에 . , ㅡ의 윗쪽에 . ; . ㅏ ㅑ
음성모음 ; | 의 왼쪽에 . , ㅡ의 아랫쪽에 . ; ㅓ ㅕ ㅗ
중성모음 ; |

모음조화를 고려한 글자

舌縮 ㅏ ㅑ (양모음)
舌小縮 ㅓ ㅕ ㅗ (음모음)
舌不縮 |

단 세계의 모든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문자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5 훈민정음과 성리학(性理學)

이 책은 심오한 철학과 글자의 운용을 밀접하게 연결시켜 놓았기 때문에 언어학을 전공하는 학자들도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다. 이 시대의 사상적, 철학적 배경은 송(宋)의 성리학(性理學)이다. 송의 성리학은 명(明) 시대에 이르러 『성리대전(性理大全, 1415년)』 등으로 집대성되었는데 이 책이 세종 1년(1419년)에 우리나라에 전래되었으며 학문을 좋아한 세종은 이 내용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 중에서 주돈이(周敦頤)의 『태극도설(太極圖說)』과 ‘聲音’을 특히 중시한 소옹(邵雍)의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 등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소옹은 수리로 우주만물의 생성원리를 설명하는데 성음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 철학자이다.

“성음의 수를 안 뒤라야 만물의 수를 관찰할 수 있고, 성음의 이치를 안 뒤라야 만물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
<皇極經世書>

이러한 이론에 영향을 받아서 훈민정음 制字解는 철학적 내용을 바탕에 둔 글자 제정의 원리를 보인 것이다. 몇 구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대개 사람이 소리를 가짐은 五行에서 비롯된다. ... 목구멍[喉]은 깊숙하며 젖어 있으니 물[水]에 해당된다. 혀[舌]는 날카로우며 움직이니 불[火]에 해당된다. ... 이[齒]는 단단하며 끊으니 쇠[金]에 해당된다.”
<制字解>

이러한 설명에서 우리는 사실과의 부합 여부를 떠나서 세종이 당시의 세계관과 철학에 기초를 두고 만물의 생성과 운행 원리에 맞춘 완벽한 글자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엿볼 수가 있다.

6 훈민정음의 미래

- 사라질 위기에 처한 언어
- 글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
- 이들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글자 : 한글, 로마자 등의 알파벳 글자

한글 나눔 (인도네시아 짜아찌아족)
(볼리비아 아이마라족)

Ramsey, S. R. (2010), The Korean Writing System in the World of the 21th Century, Scripta 2: 1-13.



한글이 세계 언어 표기체계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글로 다른 언어의 음성체계를 나타내는데 적합하다는 점에 주된 초점이 주어져 있다. 그러나 표기체계에 보편적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은 그 기능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글 창제의 이야기가 중요하다. 한글의 창제는 한국뿐 아니라 우리 현대 세계의 모든 인류에게 속한 인간적 가치를 나타낸다. 그런 보편적 가치 중의 하나는 근대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이성적 사고와 과학적 방법이다. 또 하나의 보편적 가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이다. 귀족적이고 관료주의 사회에서 세종은 문맹 타파의 열정적 옹호자였던 것이다. 그의 주장은 1446년의 훈민정음에서 보일뿐만 아니라 1434년의 삼강행실도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거기에서 세종은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부녀자도 읽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옹호하였다.

【주요 참고문헌】

국립국어원 편(2008), 《알기 쉽게 풀어 쓴 훈민정음》, 국립국어원.
김주원(2006), 훈민정음 해례본의 곁과 속, 《새국어생활》 16-3:35-49.
이충렬(2011), 《간송 전형필》, 김영사.